

'70년도 하계 양계대강습회

양계 산물의 유통 개선과 소비증대 방안

오 세 정
(건대측대 교수)



1. 닭고기의 유통개선 방안

금년도 부로일러 육성사업은 불경기의 연속이며 예년에 유래가 없었던 여름철 성수요기까지 풀리지 않고 오래 계속되고 있으며, 8월말경부터는 다소 호전되리라고 예측은 되나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 금년도 부로일러 불경기의 원인

- (1) 69년도 중기부터 육계값이 높아 생산자가 수지를 맞추자, 부로일러 육성이 많아졌다.
- (2) 69년도 중계 도입 중에 부로일러 중계 도입이 68년도의 3배(15만수) 정도 들어왔다는 점.
- (3) 세미부로의 생산이 많아졌다는 점.

3. 여름철까지 계속되는 원인

- (1) 과거 여름철 성수요기에 수지가 맞았다는 인식으로 무리하게 육성이 계속되었다는 점.
- (2) 수요에 따른 생산과잉.
- (3) 일부 지방의 질병 발생으로 육계가 일시에 많이 출하되었다는 점.
- (4) 부로일러 육성은 대부분 전업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생활을 위하여 미련을 가지고 계속 육성한 점.

(5) 신문 등 매스컴의 병든 닭이 시장에 많이 출하되고 있다는 보도가 소비를 줄였다는 점.

(6) 닭고기 요리의 다양성이 없고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하여 소비성이 줄고 있다는 점.

(7) 유통과정의 불합리.

(8) 품질 관리와 위생처리가 철저히 못하여 질적 보장이 결여되었다는 점.

4. 닭고기의 유통 현황

금년도의 육계값은 생산원가인 190원선에도 미달되는 작년도 시세인 70%선인 160~1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중간 마진은 54~79%로서 결국 이익은 중간 상인이 전부 가로채는 결과이다. 서울시내 생계 판매소는 400여개소로 영세 상인이 50%이며 중간위탁상인이 20여개소로서 거래 방법은 70%가 도계 거래이고 30%는 생닭으로 거래하여 즉석에서 도계해 가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가정 주부들은 도계된 것을 사가지 않고 산닭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잡아가는 습관이 있으며 도계의 비위생은 물론 시장의 환경 위생상 좋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시급한 제공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줄 안다.

5. 닭고기에 대한 대책

(1) 유통 체계의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과정을 단축.

(2) 닭과 계란의 전문 도매시장 개설, 중간 과정을 절감하고 가격조정, 출하일자에 통일을 기하는 도매시장이 필요하다.

(3) 도매시장의 시설 완비.

냉동, 냉장시설과 기구의 개량이 필요함.

(4) 등급별 규격제도의 확립과 검사의 철저

(가) 도계방법에 따르는 규격

① 구이용...도계를 평균 60%

② 가정용...도계를 평균 70%

③ 일반용...도계를 평균 80%

(나) 중량에 의한 등급

소(小) 600g 이하

중(中) 600~1,000g

대(大) 1,000~1,500g

특대(特大) 1,500g 이상

(다) 육질에 의한 등급

이것은 형태, 살찐 정도, 기름진 정도, 피부의 색깔 등에 따라서 검사하여 등급을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만 생산자, 처리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골고루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비위생적인 도계 판매를 지양할 것.

(6) 생계 유통에서 도계 유통으로 전환할 것.

생계 유통은 운반, 하차 중 감량이 크다.

일반적으로 수송 중 감량이 평균 3% 내외가 되며 장거리 운반한 것은 10%이상 감량되는 것도 볼 수 있다.

(7) 냉동 저장시설을 갖춘 수급조절과 콜드체인(저온 유통기구)의 보급을 농협이나 농어촌 개발공사 등의 국가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8) 자체력있는 생산 조절로 과잉생산 방지.

(9) 닭고기를 정육점이나 식료품점 등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판매점을 다원화해야 한다.

(10) 닭고기 값이 가장 싸다는 인식을 널리 주지시킬 것.

(11) 군납의 확대.

(12) 지상보도의 정확성을 기할 것.

(13) 닭고기 먹는 날(치킨데이) 제정.

(14) 위생적인 포장과 상품가치를 높이어 판매한다.

(15) 닭을 해체하여 판매한다.

다리는 다리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머리, 목을 각각 따로 포장하여 50원 100원 등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게 한다.

(16) 간이 냉장고를 사용할 것.

(17) 정육점에서 판매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18) 닭요리 다각화와 시식대회 개최.

(19) 정부는 편협된 단속을 삼가할 것.

(20) 정부는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기금을 적기에 방출하여 수급을 조절할 것.

(21) 물가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계육, 계란 등의 정확한 시세 유통 상황을 알려주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게 할 것.

6. 계란 유통개선에 대한 대책

(1) 유통 체계의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과정을 단순화시킬 것.

(2) 중량별로 등급을 주어 판매할 것.

(3) 난질을 검사하여 판매할 것.

(4) 포장을 개선할 것.

(5) 난각을 튼튼히 하여 파란을 적게할 것.

(6) 저장시설을 갖출 것.

(7) 계란 취급 도매시장을 개설할 것.

(8) 공동출하와 공동판매 방법을 강구할 것.

(9) 계란 분말, 냉동란 저장, 계란 음료 등을 만들어 소비증대와 수급을 조절할 것.

(10) 계란을 대중식사에 반드시 넣도록 할 것.

(11) 계란 판매에 검사제도를 확립할 것.

(12) 계란의 군납을 적극 추진할 것.

(13) 계란 가공품의 판매시장을 설치할 것.

(14) 계란 요리 강습회를 개최할 것.

(15) 계란 먹기 표어 제정.

이상 품질의 향상과 유통개선 소비증대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요청된다.